

남학생 性고민 여자의 3 倍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파
관련된 문제로 가장 많이 고
민하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는 성문제에 관
한 고민이 세바나 많아 이들
고민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
는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학생소년들의 경우
성문제에 관한 고민이 57.8
%로 여학생 18%에 비해
세바나 높았다. 이는 현재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전달하
고 있는 어머니들이 딸에게는
비교적 성에 대한 대화와 교
육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나
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녀의 성사 및 정신건강문제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학
업 및 진로문제(17.6%), 성문
제(14.9%), 이성문제(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
녀의 실제 고민과 상응한 차

으로 지조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연구 소·李明用소장은 『정소년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음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교나 사회단체를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뿐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성교육과 성문화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화상담 분석 자녀교육 아버지참여 크게부족

전화를 통해 상담한 내용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진한 결과 청소년들의 총
상당수 1천282명 중 성
호기심 실험을 자행한 성
행위를 실험체에 관한 것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이 이성교재문제 21.3%,
학업및 진로문제 12.3%, 정
서및 정신건강문제 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의
경우는 이성교재문제 32.2
%와 교육및 학교생활(13
%등 인간관계에 관한 고인
이가 많았다.

한편 이 실험소가 자노문
제로도들을 통해온 부모들
의 실험 총 4백15건의 내용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
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 이 실험소에 상당한
청소년들이 여자 53% 남자
47%로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자노문제를 실험
해온 부모의 경우, 여성이 89
%, 남성이 10.1%로 여
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자녀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

여자어린이들은 '친구관계'를, 남자어린이들은 '성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는 등 어린이들의 고민이 성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린이보호회(회장 이상용) '신나는 전화'(336-6233)에 지난 한해동안 걸려온 9천2백26통의 어린이 전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차어린이는 교우문제(20.9%), 이성문제(19.3%), 학습문제

남자어린이 '성문제'로 큰 고민

‘신나는 전화’ 분석 여자아동은 ‘친구관계’

(14.1%) 순으로 고민을 상담한 반면, 남자어린이는 29.8%가 성문제를 상담했고 이밖에 정보(22.4%), 학습(10.6%), 이성문제(9.4%)를 많이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어린이는 3.6%만이 성문제에 대해 상담했으며 그 내용도 '생리현상'에 대한 물음이 대부분이었으나 남자어린이는 성행위, 포르노 비디오테이프에서 본 내용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상담에서 성상당이는 비율도 85년 3.0%에서 87년 4.8%, 88년 9.5%, 89년 11.3%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